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9. 5. Vol 258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입 하(立夏)

봄이 세워놓고 떠나간
천변 미루나무
떠돌이 바람 데리고 온 여름이
흔들어 깨우고
그림자를 키우고

저녁밥 먹고 설거지 마쳐도
고무장갑 빛깔로
한 뺨쯤 남아 있는 햇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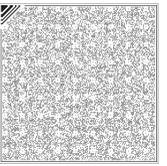
그 담장 너머
장미넝쿨로 길어진 저녁이 심심한 당신은
가슴 속 그리움 꺼내어
물소리로 헝구고
밤에 눈뜬 별들
옷섭에 매달아 보네

왜가리, 왜가리아
돌다리 건너면
오늘 잠들 집은 있었니



나 영 순

- 시인, 수필가.
- 전) 글바구니 도서관장, 한국문인협회 증평군 지부장.
- 현) 증평새마을문고 회장.
- 시집 『쥐코밥상』, 산문집 『시간의 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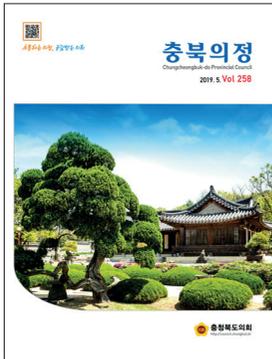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9. 5. Vol 258

Contents



운보의 집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故 운보 김기창 화백 어머니의 고향으로 김화백은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이곳에 정착해 자연을 벗 삼아 작품 활동에 전념하며 타계할때까지 노후를 보낸 곳입니다.

- 04 | 제371·372회 임시회 주요내용
- 06 | 세종시 관문·중부권 거점공항 도약 발벗고 나섰다
도의회,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점검
- 07 | 청소년 도박문제 진단·대응방안 마련 정책토론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활성화” 정책토론
- 08 |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KTX오송역 활성화 특위활동 활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등 정부예산 조속반영 요청
- 09 |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상황
- 16 | 제371·372회 임시회 주요 처리의안
- 18 | 대집행기관 질문
- 22 | 5분 자유발언
- 27 | 의정활동 이모저모
- 30 | 의정논단

- 발 행 일 : 2019년 5월
- 발 행 인 : 충청북도의회 의장 장선배
- 발 행 처 : 충청북도의회
- 구 독 신 청 :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 (043) 220-5123
- F A X : (043) 220-5119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buk.kr>



충북도의회는 지난 3월과 4월 제371·372회 임시회를 열어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의원 대표발의안,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371회·제372회 임시회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구성 등 지역현안 집중 충북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및 민생관련 조례도 제정

충북도의회는 3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제371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면허발급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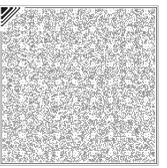
도의회는 또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제372회 임시회를 열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현안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민생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도의회는 3월 6일 실시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37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충북도지사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이어, 박우양 의원과 박성원 의원이 대집행기관질문을 각각 실시하여 △충북도 예산·결산 관련과 경제분야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과 관련한 사항들을 조목조목 질의했다.

또, 허창원·박병진·이상옥·이옥규·임영은·하유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각각 실시하여 △빅데이터는 충북미래를 위한 시작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는 충북교육의 최우선 과제 △163만 도민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충북구현!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



2019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의 변모 △정보통신 기술(ICT) 활용하여 물 부족 대책 마련 △민선7기 공약사업 및 도 시범사업의 도비 매칭비율 상향조정 기대 등을 주제로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간담회를 통해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과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3월 15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과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등 1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김영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1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가운데 신규로 제정된 조례안이 10건에 달해 민생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이 활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4월 17일 실시한 제3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 8명(위원장에 이상식 의원, 부위원장에 송미애 의원, 위원에 연종석·육미선·이상욱·이옥규·임영은·허창원 의원)을 선임했다.

또, 이숙애 의원과 박문희 의원이 각각 교육감을 대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실시해 △학교 유지·보수 관리 계약과 학교 무선망 구축과 태블릿 컴퓨터 구매, 단재초등학교 신축, 충북도 스쿨미투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율, 충북이전 기관·기업 직원 자녀들의 도내 고교 입학 지원방안, 교원대 부설고 오송이전, 공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교육의 정책조화 등 교육현안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

이어, 정상교·송미애·연종석·이수완·이의영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 농가에 농민수당 지급 △충북의 혁신, 공공디자인으로 시작 △충북도, 장기미집행시설 문제 적극 지원 △교육백년대계 실현을 위한 명문고 육성 대책 촉구 △충청북도의 폐기물 소각장 신설 중단과 관리·감독 강화 등을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4월 30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허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 운영 조례안’ 등 5건과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4건을 포함해 모두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오영탁·박성원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댐 주변지역 실정에 부합한 지원제도 개선 △충북의 미래첨단 농업 다시 기획 등을 주제로 문제를 제기하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장선배 의장은 “충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역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 특별위원회와 함께 지역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관문·중부권 거점공항 도약 발벗고 나섰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특위’ 내년 6월까지 활동



충북도의회는 4월 17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지원활동에 나섰다.

이번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부진했던 청주국제공항의 위상을 높이고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발전시

키기 위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 이상식 의원이, 부위원장에 송미애 의원이, 위원에는 연종석·육미선·이상욱·이옥규·임영은·허창원 의원이 각각 선임되어 202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거점항공사 에어로-K의 취항을 계기로 세종시 관문공항 및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또, 청주국제공항 관련 관광·항공·광역교통망 확충 및 MRO산업·에어로폴리스 2지구 사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식 특위 위원장은 “민·관·정이 중심성성(衆心成城)의 마음으로 ‘세종시 관문공항·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점검

연구회 구성,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으로 근거 마련

충북도의회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4월 1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기념사업들에 대한 경과 등을 점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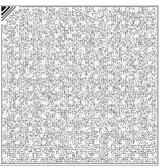
이날 간담회는 시행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장선배 의장과 ‘충북독립운동사 연구회’를 구성해 활동했던 이상식·박형용·김기창·서동학·송미애 의원, 기념사업 시행부서 주무팀장 등이 참석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단재사상 및 충북 독립운동사 연구회’를 구성해 도내 독립운동가와 사적지 현황·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조례 제정과 대내·외 연대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구회에 참여했던 이상식·송미애 의원은 독립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의 계승·발전과 관련 기념사업 추진을 구체화하는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와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충북도의회는 4월 1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점검 간담회’를 열고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청소년 도박문제 진단·대응방안 마련 정책토론

케이트 키퍼 교육 실시... 학생 도박 예방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교육위원회는 4월 1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지역 청소년 도박문제 진단과 대응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월 1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선배 도의회 의장과 이숙애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 도교육청 관계자,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역 청소년 도박문제 진단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영주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김경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충북센터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동하 도교육청 장학관, 정대용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김동준 충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권선중 침례신학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이날 토론회 앞서 김영주 의원은 “전문상담 치료 등의 지원체계 마련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예방교육”, “관련 종사자에 대한 도박문제 케이트 키퍼 교육 실시”, “국가·지자체, 가정, 기업, 사회에서 청소년을 돕기 위한 역할과 책임이 필요” 등이 제시됐다.

또 “다양한 놀이터 개발”,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 확보”, “사이버도박으로 인한 2차 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활성화” 정책토론

‘도내 시니어클럽 지원확대·시장형 노인 일자리 늘려야’

정책복지위원회는 2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북의 노인 일자리 실태를 점검하고 조례 개정을 비롯한 노인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최경천 의원을 비롯해 박상돈, 육미선, 이상욱, 송미애 의원, 이은주 시니어클럽협회 충북지회장, 도내 노인일자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및 종사자, 담당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산복지개발원 박경하 선임연구원과 이광희 전 도의원은 ‘노인일자리의 변화조건과 과제’와 ‘충북도 노인일자리 조례 개정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최경천 의원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회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충북지역 남상현 본부장, 충청대학교 김준환 교수, 청주우암시니어클럽 김현숙 관장, 대한노인회충북

연합회 안정숙 취업지원센터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나서 주제 발제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내 시니어클럽 설치 및 지원 확대 △시장형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 인턴사업을 통한 취업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정책복지위원회는 4월 2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한국시니어클럽 충북지회와 공동으로 ‘노인일자리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KTX오송역 활성화 특위활동 활발

‘국회 강호축 토론회’ 참석, 오송역·봉양역·충주역 등 현장 확인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4월 22일 봉양역과 충주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충북도의회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연철흠)는 4월 22일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논란이 되고 있는 봉양역과 충주역 등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이고자 청주 오송역을 시작으로, 청주역~제천역 구간 열차를 직접 이용하며 현장을 실사했다.

특히, 위원들은 봉양역을 방문해 경유노선 사업내용과 북부권 관광인프라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충주역으로 이동해 현장을 확인했다.

연철흠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최근 제기된 논란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정이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또, 4월 2일 8개 시도 연구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호축 국회 토론회’에 장선배 의장과 함께 참석해 △8개 시도지사의 강호축 국가계획 반영 공동건의 △강호축 발전방안 관련 전문가 토론 등을 요청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등 정부예산 조속반영 요청

장선배 의장,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간담회서 지역현안 건의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4월 25일 세종시 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장선배 의장은 충북 최대 현안으로 예타면제 사업에 선정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과 관련해 △강호선 고속철도망의 핵심인 오송연결선(1938억) △충북 북부권 발전을 위한 봉양역 경유노선(2748억) △삼탄~연박 선형개량이 포함된 청주공항~연박 고속화 개량(1조 3271억) △중양선과 원강선(원주~강릉)을 잇는 원주연결선(1696억) 등 총 1조9653억원의 사업비를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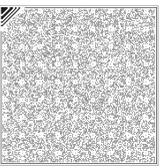
이에 앞서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임업·임업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안’ 등 10건의 민생관련 안건을 처리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또, 시·도의장들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연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장선배 의장은 “충북의 최대현안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정부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4월 25일 전국 시·도의회의장단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 초청으로 총리공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71·372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충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 개정안 등 의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 대비 1억201만5000원이 증액된 113억2887만4000원을 증액편성 한 것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의정활동업무추진비 7366만7000원, 홈페이지 운영웹서버 및 노후행정장비 교체비 2630만원을 증액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했다.

이어, 3월 28일부터 실시하는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도의회 의장이 협의 요청한 도의원 및 회계 관련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추천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위원회는 제372회 임시회를 오는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14일간 개최하여 제출된 안건과 기타 현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제372회 임시회 중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4월 17일 실시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의회 의원의 출장 여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철도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된 원칙과 절차 등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연수제도 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해 상정된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이견 없이 원안 가결했다.

또,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세종시 관문공항 및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제373회 정례회를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 열어 현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4월 1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373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자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71·372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노인일자리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마련 촉구



위원장
박상돈 의원



부위원장
박형웅 의원



심기보 의원



육미선 의원



이상욱 의원



최경천 의원



정책복지위원회는 4월 18일 충북연구원 신청사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확인한 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돈)는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소관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재)충북학사 등 주요 사업현장을 점검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사회활동, 교육지원에 대한 투자를 당부하고, 철저한 사업비 산출로 추경예산이 요구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맞춤형 해외의료 특화병원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 환자 확대유치에 노력할 것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충북장애인회관 조기건립을 촉구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확대지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도민이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육미선·이상욱·이상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중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지원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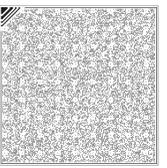
제372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노인일자리 활성화 정책토론회’ 등을 실시했다.

먼저,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는 정책실명제의 추진동력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또,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는 등 해당 조문을 정비했다.

이어,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출산 등의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이용 편익을 위해 상정된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4월 23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충북지회와 공동으로 ‘노인일자리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내 노인일자리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71·372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인터넷방송국·충북문화재단 등 현장점검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전원표)는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인터넷방송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3월 18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국 등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무예소설 발간사업 1억원과 연등축제 지원사업 1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했다.

위원들은 심사에서 수소자동차 구입과 소방감지기 및 수신반 교체공사 등에 대한 실효성 여부를 강조하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심사에서는 무예소설 발간사업의 추진방식과 심사기준, 연등축제 지원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타 사업과의 일관성 있는 보조비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과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제372회 임시회 중에는 「충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충청북도문화재단을 방문해 현황과 시설 등을 점검했다.

4월 18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허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폐지 조례안」과 송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남부권과 북부권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수정 가결했다.

또, 4월 18일 충청북도 문화재단을 방문하여 공모사업 등에 대한 현황과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노후시설물을 점검한 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충북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했다.



위원장
전원표 의원



부위원장
허창원 의원



송미애 의원



연철흠 의원



이옥육 의원



정상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는 4월 18일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회부된 7건의 안건과 기타 현안들을 심사·의결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71·372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타 지역과 에너지 생산 정책 분야별 비교·분석



위원장
박우양 의원



부위원장
임영은 의원



박문희 의원



이상식 의원



이상정 의원



하유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11일 청주시 내수읍에 위치한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해 가축전염병 검사 및 방역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염병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양)는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 부서별 「2019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등 민생관련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도정 주요 사업현장을 점검했다.

3월 8일 실시한 ‘2019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경제통상국, 농정국, 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원 등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예산이 내실 있게 활용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이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직무육성품종의 관리 등을 위해 임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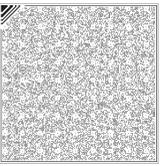
또한, 3월 11일 축산물 가공 및 가축방역의 운영현황과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음성축산물공판장, 진천 농산사업소, 내수 동물위생시험소 등을 방문하여 관련 시설들을 점검한 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제372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에너지 생산의 분야별 비교를 위해 관련기관을 견학했다.

먼저 4월 17일에는 하유정 의원과 이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는데 두 조례안은 도내 근로자, 도 산하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제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또, 4월 18일부터 이틀간 에너지 생산의 분야별 비교를 위해 경북 경주 종합자원화단지를 방문해 폐기물 소각 열로 운영하는 목욕탕·찜질방 등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음식물쓰레기로 사료를 생산하는 재생 에너지 생산과정을 견학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을 방문해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원의 현황과 발전사례를 견학하며 충북의 에너지 정책인 태양광산업과 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에너지 정책과 방향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제371·372회 임시회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안전정책 방향 모색과 의정역량 강화 현장견학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수완)는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7일 위원회를 열어 소방본부, 환경산림국 등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부지 등 주요 사업현장을 점검했다.

3월 7일 실시한 「2019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며 현안사업 추진에 만전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심사에서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한 재산권 보호와 형평성 있는 예산배분”을 주문하고 “소방서 여직원 채용 및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오송센터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부분적 공사를 지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고, 환경산림 홍보대사 제도의 지속적인 추진과 환경산림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한 중앙부처네트워크 구축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3월 15일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부지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 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372회 임시회 중에는 의원 대표발의 안건과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안건 등 3건을 심사하고 청주전시관과 재난안전체험장 건립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송도컨벤시아와 서울보라매안전체험관 등을 견학했다.

먼저, 윤남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무궁화진흥 조례안」과 박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 운행노선 선정 등 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일부를 보완해서 수정 가결했다.

또, 위원회는 4월 1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를 방문하여 전시관 시설을 견학했다.

이어 4월 19일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과 코엑스 Bio KOREA 2019 홍보관을 각각 방문하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체험관과 전시관 등의 관련 시설을 견학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3월 15일 청주시 밀레니엄타운 내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교육위원회

제371·372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학교폭력·교권침해 최소화 등 교육여건 개선 촉구



교육위원회는 4월 24일 청주혜원·혜화학교 등을 방문해 특수교육과정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한 후 장애학생들의 특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를 열어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먼저, 3월 8일 실시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행복씨앗학교 신규지정 및 운영과 뉴스페이스 사업의 계획적인 예산집행과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학교폭력, 학업중단, 교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안전훈련 기관별 실시 등의 안전교육 여건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3월 11일 실시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유치원 교원연수 시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과 남부·북부·중부지역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 지역안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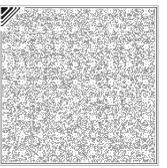
제372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청주혜원·혜화학교, 국제교육원 남부분원, 학생수련원 옥천분원 등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열어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이숙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서동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는 유아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유아모집·선발 계획, 선발요강, 유아모집·선발방법 등을 명시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황규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는 생존수영교육과정 운영과 수영시설 확보, 안전관리 대책 마련,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가·보완해 원안 가결했다.

또,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연종석)는 제371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조정과 이에 따른 도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했다.

또한,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고용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 지원과 강호축 예타면제 후속조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세대 산업 육성분야 등의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과 여건변화에 따라 반영이 필요한 신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당초예산 4조5788억9031만6000원 보다 3870억3920만8000원(8.5%)을 증액한 4조9659억2952만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3455억9222만6000원(8.5%) 증액된 4조3935억38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414억4698만2000원(7.8%) 증액된 5724억2567만4000원이다.

이중, 도비 2000만원 이상을 반영한 신규사업은 93

건에 178억8955만원으로, 충북 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 3억원, 무예마스터십 무예소설발간 1억원,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술 개발지원 8억원, 중부권 방사광 가속기 구축 4억원 등이다.

성립전예산은 34개 사업에 58억2387만6000원이며, 집행액은 38억7452만2000원(66.5%)으로 나타났고 주요사업은 충북 청년기업 프로젝트 5억7000만원, 희망을 이루는 청년지원사업 2억원, 경력단절 청년특화 영유아 돌봄서비스 2억1000만원, 구제역 방역 대책 사업비 7억원 등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기획관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진행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예결위원과 충북도 집행부 관계관과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으로 이어졌으며, 계수조정 결과 세입에서 1개 사업에 3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3개 사업에 13억3609만원을 삭감하여 이중 국비 3억원을 제외한 10억3609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여 원안 가결했다.

또,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13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9년도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제371·372회 임시회 주요 처리의안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대표발의 : 육미선 의원)

[제안이유]

-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상식 의원)

[제안이유]

- 일제강점하에 충청북도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대표발의 : 이옥규 의원)

[제안이유]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충청북도 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송미애 의원)

[제안이유]

-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희생정신과 민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도내 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발굴 및 체계적 조사와 보존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상식 의원)

[제안이유]

- 도내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 이상욱 의원)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실명제의 추진동력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충청북도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이상욱 의원)

[제안이유]

-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 및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및 문구의 정비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 이옥규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충청북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하고자 함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송미애 의원)

[제안이유]

- 충북도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화하고,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충청도민이 보다 생활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정상교 의원)

[제안이유]

-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중진 전통무예 진흥과 관련 세계무예 마스터십위원회(WMC) 등 지속적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근거(조례) 마련

충청북도청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임영은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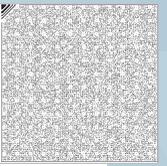
[제안이유]

- 옥수수 품종과 직무육성품종의 관리 및 승계기관으로 농산사업소를 추가하여 지정함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박상돈 의원)

[제안이유]

-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심기보 의원)

[제안이유]

-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의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육미선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폐지조례안 (대표발의 : 허창원 의원)

[폐지사유]

-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는 2007년 제정된 이후 운영 실적 이 없음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의 국민참여 확대 노력과 전자적 정책토론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방법을 마련하여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의 실효성이 감소함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하유정 의원)

[제안이유]

- 도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대표발의 박병진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켜 화재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서동학 의원)

[제안이유]

-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11조에서 위임한 유치원의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황규철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생존수영교육과정 운영, 수영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보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송미애 의원)

[제안이유]

- 향교와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서원의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최경천 의원)

[제안이유]

-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고, 조문 체계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 문구 등을 정비함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허창원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이상정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 윤남진 의원)

[제안이유]

- 역사적 가치를 지닌 나라꽃 무궁화의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숙애 의원)

[제안이유]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로 변경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박 우 양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등 현안사업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질문 박우양 의원

답변 이시중 도지사

Q 대부분의 도민들은 충북도가 공시한 자료를 볼 때 충북도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 비교에서 우리도의 재정규모가 약 4조7000억 이상 적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충북도가 국비 등 다양한 예산확보에 소홀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 견해는 무엇입니까?

A 시·군 수 별로 예산규모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유사 자치단체의 예산총액을 시·군별로 나누면 충북도가 9개도 중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큼니다. 시·군 수로 나누면 우리보다 많이 적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주민 일인당 채무가 우리 도는 42만9000원이고 유사 자치단체 평균은 32만5000원으로 도민 일인당 채무가 10만원 이상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지역개발공채 이외에 차입된 채무는 현재 없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별 일인당 채무액을 비교해 보면 충북의 일인당 채무액이 9개도 중 다섯 번째로 중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Q 올해 세계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는데 충북도가 예상하고 있는 GRDP의 추정치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충북이 최근 여러 가지 경제성장률에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전국평균 성장률이 2.59%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며 충북의 성장률을 3.97%~4%로 전망해서 추정한 액수가 약 한 60조 정도 됩니다.

Q 도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도내에서 소비할 경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약

11조4000억원을 다른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역외유출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역화폐 도입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소비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우선 그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사 이전이 가장 중요한데 본사 이전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다양한 복지시설, 병원,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가 복합된 사항이지만 그러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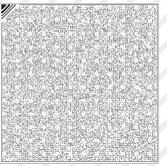
Q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는 4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IOT, ICT, AI, 드론, 빅데이터 등을 융합한 첨단영농실습단지로서, 최첨단으로 영농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단지인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농림부에서 미래첨단영농복합단지와 유사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구상을 하고 기재부와 정부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현재 추진하는 바람에 미래첨단영농복합단지가 담보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1차 공모에서 탈락한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을 2차 공모에서 우리 제천시가 대표선수로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에 응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충북도를 포함하여 6개도에서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공모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꼭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고 또 스마트팜혁신밸리는 그것대로 계속 응모하여 투 트랙 작전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원 의원
(교운위원회)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균형발전의 초석 되도록 설계해야

질문 박성원 의원

답변 이시중 도지사

Q 이번 예타 면제사업 통과 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과 오송연결선, 봉양연결선, 원주연결선이 모두 포함되어 통과한 것인지, 아니면 연결선 사업은 제외되고 순수하게 충북선 고속화 사업만 예산이 확정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A 현재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Q 올해 2019년 철도기본계획 수립비 165억원이 정부 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2019년 기본계획, 2020년 기본설계, 2021년 실시설계, 2022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행정절차 등의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과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기본계획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미 금년도 예산은 목적사업비와 예비비 개념으로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들어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제천역은 이미 고속철도를 맞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천 시민들의 바램은 제천역의 위상에 맞게 목포에서 강릉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를 연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철도의 X축인 강호축의 중심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천역의 기반시설과 위상과 활용가치에 대한 제천 시민들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A 예, 저도 시민들의 그 뜻을 존중합니다.

Q 본의원은 강호축의 제천역 연결은 철도노선의 신설과 개량 등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토목사업 측면만이 아니라 노선운용 즉 차량운행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두 가지 노선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본래의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충북선인 봉양에서 중앙선인 제천역까지 스위치백 열차운행 도입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스위치백 문제는 철도 운영위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철도청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Q 두 번째 방법은 제천을 시발로 하는 독자적인 열차노선을 운행하는 것입니다. 제천을 기점으로 한 제천~목포 간, 제천~강릉 간 노선에 EMU 고속열차를 투입하여 노선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철도 운영의 문제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Q 본 사업은 단순 SOC예산이 아닙니다. 근대와 현대를 잇는 대한민국의 발전사에서 소외되었던 충북을 아우르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한 충북균형발전 예산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와 이시중 지사님께서도 충북의 균형발전에 본 사업의 명운을 걸어야 합니다.

이제 향후 이어지는 행정절차에서 제천시민의 염원대로 제천역 진입을 위해 스위치백 등 열차운용계획에 대한 정부 수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겠습니까?

A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숙 애 의원
(교육위원회)

스쿨미투 통해 본 학교 성폭력 문제 꼼꼼히 짚어봐야

질문 이숙애 의원

답변 김병우 교육감

Q 저는 오늘 교육감님을 모시고 스쿨미투를 통해 본 학교 성폭력 처리과정, 학교 유지관리 및 무선구축 관련 절차, 단재초교 신축 지연으로 인한 학부모 불편과 지역사회 갈등야기 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스쿨미투를 통해 우리가 본 것은 충북교육청의 조사가 상당히 소홀했었다, 조사방식이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처리절차 과정에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들에게 가해자 편에서 탄원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조사과정에서 세심히 조사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그런 부분이 유발된 것 같습니다.

Q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는 충북지역의 어떤 학교에서도 성폭력과 미투가 일어나지 않는 충북지역의 교육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 가해자가 교사가 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사조치가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꼭 똑같이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타· 시도 교육청의 사례를 들어 민간인이 포함된 조사위원들을 배치·위촉하고 교육에 있어서의 실효성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 예, 민간 전문가라도 검증된 분들을 조사단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Q 태블릿PC 구입과 관련 무선망 구축은 20%밖에 되지 않고 80%가 태블릿PC입니다. 무선망 구축이 KT가 20%밖에 안 되는데 80%인 태블릿PC를 보급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A 무선망 구축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교육부와 NIA라고 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공동구매한 사업에 시도별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교육부에서 몰아주기식 선정에 대해 거부의를 표현하시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 집행하여 충북의 교육 자치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A 네, 알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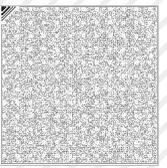
Q 학교 유지·보수 계약에 관련, 교육청에서는 전산기기 도입가에 대한 유지·보수 요율을 8% 적용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기준에 의해서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것을 학교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A 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Q 단재초등학교 신축 지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재초등학교를 2월 6일까지 준공했어야 되는데 3개월이나 지연되어 649명의 학생들이 인근학교로 편성되어 통학과 관련 학생·학부모의 불편문제, 임금 체불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야기 등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앞으로는 신축 시 관련 법령들을 철저히 준수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문 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충북학생 1인당 사교육비 전국 최고, 공교육이 무너진 탓인가

질문 박문희 의원

답변 김병우 교육감

Q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4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 7%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북은 공교육이 무너져 학교에서는 배울 게 없으니 자연 학원이나 과외수업으로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2018년 충북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관련 통계는 전년 대비 증가율을 비교하는 조사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2017년도에는 감소율이 전국 1위였다가 2018년도에는 증가율이 전국 1위였습니다. 저희는 그 통계를 접하며 곤혹스러웠습니다. 그 1년 사이에 충북에서 획기적인 교육정책 변화의 제도적 요인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양극단의 널뛰기 지표가 나와 조사방법과 표집대상 선정의 신뢰성에 의심을 가졌습니다.

Q 2017년도 조사 내용과 2018년도 조사 평가방법이 달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사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A 통계청에서 사실상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조사를 세분화하다 보니 비수도권 표본수를 줄이게 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는 통계청의 조사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해 교육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면 사교육비 통계를 포함한 모든 교육 관련 통계

를 자체적으로 내기 위한 대책 기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Q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A 사교육비를 포함한 이 모든 종합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우선 정밀한 통계분석과 실태조사를 위해 전문기관에 충청북도 사교육비 경감방안 연구를 용역을 의뢰하고요.

그 다음 자체기구인 교육정책연구소나 정책기획과, 학교혁신과 등을 포함해 TF를 구성하여 경감대책 수립 후 상반기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Q 지난해 12월 10일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민선7기 무상급식 경비와 명문고 육성 등을 포함한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해 합의한 바 있지요?

충북도는 명문고를 도내 우수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와 외부 우수인재를 도내로 유입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전국모집의 고교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에 동의하시나요?

A 의원님께서도 명문대학에 많이 보내고, 명문대학에 갈 만한 최상위권 학생들을 많이 골라 뽑아놓은 학교를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는 그렇게 뽑는 데에 승부를 걸지 않고 잘 기르고 좋은 교육을 하는 학교를 명문학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대들보감이 아니라도 대들보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학교 교육을 충실하게 잘하고 잘 가르치는 쪽으로 치중을 했는데, 좋은 인재를 잘 골라 뽑는 것도 놓치지 말라고 하신다면 그 부분도 유념할 생각입니다.

빅데이터 활용으로 충북 미래 선도



허창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최근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등 충북과 관련된 사업들이 예타면제로 충북이 국토의 중심으로 한발 더 다가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사이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한다면서도 현실은 그렇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산업화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행정의 과학화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제정했지만 타 시·도에 비해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린 편입니다.

대부분의 타 시·도는 이미 빅데이터 전담조직을 두고 있거나 총괄적인 기획·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획조정 부서에 담당부서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미래 충북을 위해 빅데이터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인원을 증원할 것과 빅데이터 전담팀이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충북이 선도한 빅데이터를 충북의 민간기업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도민과 공유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충북 교육의 최우선 과제



박병진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지난 2014년 이후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부3군을 비롯한 도내 6개 군 지역이 교육 분야에서 조차 처참한 외톨이 신세로 전락해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미 도의회에서는 교육 분야 낙후지역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특별재정 지원 등의 교육격차 해소 대책수립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교육경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6개 시·군은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충북도에서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학생들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균형교육이 실현되도록 해줄 것을 지사님께 촉구 드립니다.

교육의 가치는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입니다. 경제적 논리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한다면 충북교육은 빛이 없는 터널 속으로 영원히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저발전 지역에서 아이들이 교육 분야만이라도 홀대 받지 않고 도시지역 학생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교육인프라가 적은 지역에 과감히 투자하여 교육불균형 해소에 앞장서는 충북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북도의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촉구



이상욱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충북도의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책마련과 청주시 소각장 증설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 드립니다.

충북은 발암물질 배출량과 초미세먼지 농도 1위 지역으로, 호흡기계통 질환 사망률이 10만명당 39명으로 전국 평균 32명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OECD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기오염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40년 후 이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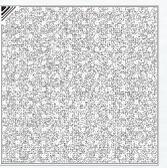
이는 충북이 세계에서 최악의 지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 외 지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노후 발전소 운영연장 중단·폐기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대기오염 총량규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수립과 실행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례 제정과 미세먼지 전담팀 신설 등과 함께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환경 행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는 달라야 한다!



이 옥 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제1회 충주무예마스터십대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떠올리며 우려하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충주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됩니다.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이유는 인류의 무형유산인 무예 진흥과 충북도를 세계무예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어 무예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성공을 위해서는 2016년 충주대회에서 있었던 비판의 목소리

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관중동원 등의 구태의연한 기관주도 대회로 사전 기획하지 말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를 계기로 충북에서 전통무예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야 합니다.

셋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람하도록 관중의 입장에서 경기종목과 선수를 선정·구성해야 합니다.

대회 성공은 무리한 관중동원과 경제적 효과 부풀리기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시선을 의식한 내빈초대와 수준 낮은 선수단 구성 등은 분명히 지양되어야 합니다.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도민의 역량결집과 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물 부족 대책 마련을



임 영 은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저수지는 1만7659개가 산재해 있어 이들 저수지는 농업용수와 소규모 수력발전, 상수·공업용수로 사용되고 관광기반시설, 낚시터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183개의 저수지가 있으며 담수량은 2억500톤으로 전국 저수지 평균 담수량 88%대비 95%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 가뭄이 봄 가뭄으로 지속될 경우 발작

물은 생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영농을 위해 효율적인 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110년만의 폭염으로 축산인들은 가축폐사에 속수무책이었고 한해로 인해 과수농가와 밭작물 재배 농민들은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태를 그저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충북도는 조속히 물 부족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공업·상수원용수의 공급균형을 맞추고 적정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용수를 공급받도록 자동제측기, 빅데이터 분석 등의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충청북도에 제언 드립니다.

공약사업 및 도 시범사업 도비 보조율 상향 촉구



하 유 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민선 7기 공약사업은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을 슬로건으로 모두가 공유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개 분야 130건의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충북도 도비 보조비율을 검토한 결과 총 사업비 2조3000여 억 원 중 도비 보조비율은 7%에 불과했으며, 도비를 채 10%도 부담하지 않는 사업이 무려 11개 사업 중 4개의 사업이 지사님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선 7기 충북도 공약은 이시종 지사님과 163만 도민과의 약속이이지 시·군 단체장의 공약이 아닙니다.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보조비율을 재검토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 충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농업기술원 시·군 시범사업 49건의 보조비율을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보면 충북도의 보조비율이 8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연 꼴찌 수준입니다.

이는 17만 농업인에 대한 확대적 예산편성으로 최소한 타 광역자치단체와 보조비율이 비슷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비율 상향조정을 촉구합니다.

인사청문회 법제화로 민주적 절차 마련돼야



김영주 의원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후보자의 직무 수행능력, 도덕성, 윤리성 등 전반적인 자질요건 등을 사전에 검증해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부와 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의장님의 제안과 본의원을 단장으로 한 TF단을 구성하여 인사청문회에 따른 운영기준과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가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권자의 정실인사 남용과 전문성·도덕성을 검증하는 지방의회의 역할·기능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 산하 기관장 중 반드시 인사청문 절차가 필요한 직책을 집행기관과 도의회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국회수준의 민주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산하기관을 내실화하여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지사님께서서는 도의회가 도 산하기관장의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도덕성을 검증하도록 인사청문회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충북 농민들에게 농민수당 지급하자!



정상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우리 충청북도의 농가인구는 17만3400명으로 충청북도 전체 인구의 약 10.4%에 불과하며, 충청북도는 이미 농업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직장인들과 달리 연금이나 노후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하여 죽을 때까지 농사일을 놓을 수가 없는 실정으로 고령자인 농부를 이런 위협에 처하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해남군과 강진군에서는 선제적으로 해당군의 모든 농가에 연간 60만원에서 7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저의 지역구인 충주시와 인접한 경기도 여주시에서도 올해부터 연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며, 전국 20여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수당을 시행하는 것은 퍼주기식 정책이 절대 아니라 고령화 및 소득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충청북도의 농업·농촌을 살리고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며 제4차 산업 혁명시대의 새로운 농업·농촌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충북의 혁신, 공공디자인으로 시작하자!



송미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디자인은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행복을 주는 원천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여 주는 매우 가치 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을 외치면서 부서장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자인총괄본부를 설치한 바 있고, 그 결과 서울시는 세계적인 디자인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디자인총괄본부를 신설하여 한옥마을 관광화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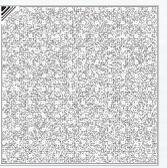
1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전주를 다녀갔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지역디자인센터(RDC센터)를 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8년에 디자인진흥사업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충청도에는 아직까지 지역디자인센터도 없고 활성화 되지 않았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첫째, 공공디자인을 충청북도의 행정에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민간지원조직 및 공공디자인센터 등의 설립을 검토 바랍니다.

넷째, 행정·의회·민간단체가 포함된 전담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충북도, 장기미집행시설 문제 적극 지원해야



연종석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현재 충북도에는 장기미집행시설이 10년 이상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도민들의 재산권 보장이 침해받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5조7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미집행기간 장기화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인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도시 발전과 기능 유지에 필요한 도로, 공원, 녹지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았지만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20년 7월 1일 이후 일몰제 시행으로 인하여 미집행된 도로, 공원 등이 대규모로 해제되는 상황으로 충북도에서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정책적, 행정적 지원과 제도개선 발굴 건의 등의 노력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보상비 국고지원, 국공유지 일몰제 제외, 지방채발행 별도한도 인정, 토지은행제도의 자본비용비율 인하, 토지소유자 매수청구제, 토지소유자 해제신청제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충북혁신도시에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이수완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개인의 교육신념과 철학이 아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냉혹한 교육현실은 우리 충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부족에 따른 악영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의료, 문화, 교통 등 전국 최하위 수준의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중 교육여건 부족현상은 자녀동반 이주를 방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 향상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주율을 높이고 혁신도시의 조기안착과 인구유입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형 공립고인 서전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고 충북혁신도시 내 공공용지(유휴지)를 활용한 신설 고등학교 도입 논의도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대안 중 하나로 충북혁신도시 내에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한 '자율형 사립고' 설립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우수인재의 유출방지와 타 지역 인재들을 충북으로 영입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며 인재육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산업폐기물 소각장 신설 중단 관리·감독 강화 촉구



이의영 의원
(교육위원회)

충북도의 블랜드슬로건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의 소각장 신설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난 도민의 절규에 찬 요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창 후기리 소각장을 포함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신설을 막고 기존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한 충북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며 몇 가지 방안을 제안 드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청북도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폐기물 관리·감독 전담TF팀 구성입니다.

둘째, 도내 사업장 폐기물 관련 규제 강화 조례 제정입니다.

셋째, 폐기물 소각장 인근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와 건강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 마련입니다.

넷째, 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의 민주적인 소통과 참여, 실질적 협의체 마련입니다.

다섯째,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시행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변재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장 대책 3법의 입법 지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댐 주변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제도 개선하자



오영탁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환경과 토지이용의 중복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불합리성과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충주댐 주변지역인 단양군·제천시·충주시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공

동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해 현재 국회 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현행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는 피해정도 대비 미흡한 보상, 조정계수로 인한 잉여금 문제, 비합리적인 배분 기준, 낮은 지원사업 만족도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리적 지원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피해종류, 규모, 주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전체 피해액과 피해주민 별 피해액 등을 정확히 산정하여 보상과 지원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 충주댐과 같은 대형 다목적댐에서 출연한 재원은 해당 지역으로 환원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충북의 미래첨단농업 다시 기획하자



박성원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제천시가 탈락하며 4차 산업과 융합된 충북 농업의 미래 계획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같이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농업인-기업인-연구기관 간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점 조성 사업으로 지역별 안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충북지역의 미래첨단농업 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해 침체된 농업이 다시 도약하고, 그 기회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충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권역별 사업지가 영·호남에 집중된 사유와 평가자료 공개 및 명확한 설명을 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구합니다.

둘째, 한방천연물 기반의 식물주권 수호를 위한 거점 확보 및 중부권 농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추가지정을 요구합니다.

셋째,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구합니다.

넷째, 농촌인프라 구축 개념인 '농시'공약을 포함한 충북 농업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농산물 판매처에 대한 지원과 '지역 농산물 소비순환체계' 도입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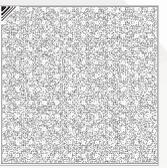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163만 도민과의 행복한 동행

민 의 동 행 民議同行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3월 25일 송미애 의원이 주최한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송미애 충북도의원과 변은영 청주시의원이 주최하고, 사회적경제 제도 생태계 구축 TFT '사람과 경제'가 주관한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3월 2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연철흠·허창원·이옥규 의원과 육미선·이상욱 의원이 함께했다.

또한, 하덕천·이혜정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상임공동대표, 박중효 정책위원장, 송유정 충북자활기업협회 이사, 충북도·청주시 관련부서 간부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사회적경제 조례의 제정 취지와 답아야 할 내용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강원 산불피해 성금 도의회도 동참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장은 4월 12일 강원도의회를 방문해 도의원과 사무처직원들이 모은 강원도 산불피해 구호 성금을 전달했다.

충북도의회가 4월 12일 강원도의회를 방문해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이 모은 강원 산불피해 구호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선배 도의장은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을 만나 이번 산불로 막대한 인적·재산적 피해를 입는데 대한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또한, 장 의장은 "갑작스런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강원도 이재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의미에서 성금을 마련했다"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충북도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 한금석 의장은 "전국 각지에서 격려와 도움의 손길을 전해 주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재해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소년 대상 '의정 체험의장' 열어



충북도의회는 3월 29일 청주 상당고 학생들을 초청해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정들을 직접 체험하게 했다.

충북도의회는 3월 2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장선배 의장 추천으로 청주 상당고 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의정체험 프로그램'은 도의회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현장체험과 역할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실생활과 연관된 정치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의정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의사진행과 조례안 심사보고, 5분 자유발언 등 실제 도의원들이 시행하고 있는 과정들을 직접 체험했다.

도의회는 의정체험 활동을 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적극 홍보·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3월 8일 충북학사 동서울관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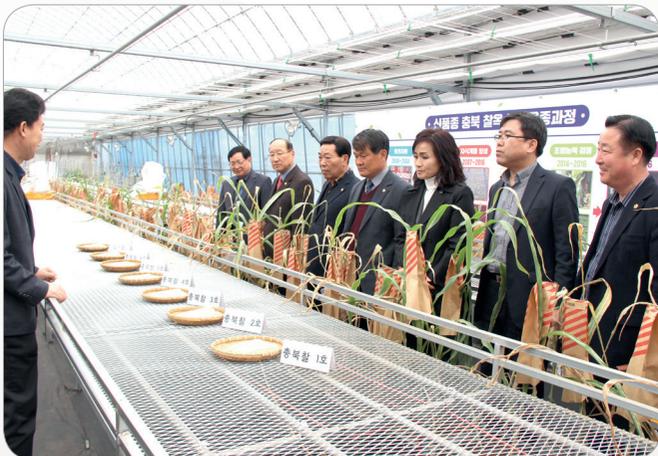
정책복지위원회는 3월 8일 충북학사 서서울관을 방문해 그간의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3월 11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위탁 운영 중인 충청북도인터넷방송국을 방문해 도정 홍보의 효과성 등을 점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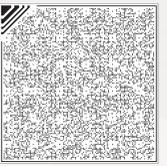
행정문화위원회는 4월 18일 충청북도문화재단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3월 11일 충청북도농산사업소를 방문해 옥수수 재배 및 품종개발 등에 대한 설명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4월 18일 경주 종합자원환지지를 방문해 폐기물에너지 를 활용한 전기발전 및 주민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4월 19일 코엑스를 방문하여 현황 설명을 듣고 Bio KOREA 2019 홍보관을 살펴본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4월 19일 보라매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안전관련 시설물들을 살피고 심폐소생술 체험을 실시했다.



교육위원회는 4월 24일 옥천군에 위치한 충북도학생수련원 옥천분원을 방문해 프로그램 설명을 듣고 야영·수련활동 장소의 안전시설을 점검했다.



교육위원회는 3월 7일 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해 유아체험시험실 등을 점검하고 교육과정을 청취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장선배 의장과 김영주 위원장 등은 3월 28일 의장실에서 중국 위해국제공항 대표단과 청주~웨이하이간 신규노선 취항 의견을 나누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4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호축 국회 토론회'에 조기 주진을 강조했다.



연 종 석 의원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지진과 재난 관리 정책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2016년 9월 12일 우리나라 지진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했다. 이후 발생한 여진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충격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로 인해 당시 지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경주지진이 발생한 지 불과 1년 뒤 포항에서 또 한 번의 지진이 발생했다. 자칫 잊힐 뻔 했던 경주 지진의 악몽이 되살아났고, 지진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었으며, 이는 정부와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물들은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특히 내진설계에 대한 낮은 인식과 기술로 인하여 대규모 지진발생에 대한 피해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그렇다면 지진에 대비한 현재 충청북도의 현황은 어떠한가?

자연재난은 일정 부분 예측이 가능하고 재난관리 단계에 따른 법제도 정비와 시설물 보강 그리고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복구노력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진에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물 보강을 통한 내진설계다.

충북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으로 내진대상 2086개소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곳은 996개소로 47.8%가 내진설계가 적용되었거나 내진성능평가 실시 결과가 양호 또는 보강대상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도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건축물 중 여전

히 내진대상이 되는 공공건축물 1090개소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내진성능 평가결과가 미흡한 보강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을 담보하는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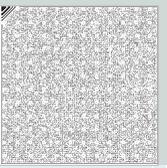
특히, 청주시,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내진대상 공공건축물 중 내진성능 확보율이 상당히 저조한 지역으로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는 더욱 문제가 크다. 법적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충북도내 전체건축물 24만3075개소 가운데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1만5298개소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약 6.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은 지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대책이다. 하지만 내진성능확보를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단 기간에 추진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지진에 대한 생활안전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진에 대비가 필요하다. 충청북도의 지진방재 계획에서 사회기반시설 정비는 공공기관 주도로 실시하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기회를 보장해 민관거버넌스 성격의 지역방재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병행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공동체 회복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진을 포함한 재난관리 정책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장애우·다문화 학생

차별없이 교육받는 세상을 기대



서 동 학 의원
(교육위원회)

충청북도의회원으로 당선된 후 상임위원회 선정을 위한 회의 참석차 처음 충청북도의회 방문하였던 작년 7월이 생각난다. 도의원에 당선되었다는 기쁨을 뒤로 하고, 충북 도민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보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할 도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어느 상임위가 가장 적합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다.

고심 끝에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를 희망하였는데 다행히 희망하였던 교육위원회로 결정되어 매우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상임위를 교육위원회로 배정받은 후 충북 교육의 발전을 위한 큰 포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했다.

나는 예전부터 장애우 학생과 다문화 학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장애우 학생의 교육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충북 소재의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시설을 점검했다. 특히 충주 소재의 특수학교를 찾아다니며,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장 및 특수학급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특수학교의 교육환경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들어 볼 수가 있었다.

특수학교의 교육시설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면담을 해보니 학생들의 교육 시설과 관련된 특수학급 증설 및 교실 리모델링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이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 바로 해결하

기는 어려워 차후에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관계자와 협의했고, 학생들의 안전에 직접 관련된 휠체어 통행로 및 안전바 설치 등의 사업은 바로 개선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특히 충주 소재의 특수학교에 다니기 위해 음성과 제천에 사는 학생이 충주로 등·하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는 적잖이 놀랐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를 했고, 통학버스를 지원해 주었다.

얼마 후 통학버스를 이용해 등·하교를 하여 수업에 참여 하고 있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쓴 감사 편지를 받게 되었다.

학생들의 손수 쓴 편지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지금까지 장애우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 충북 도내에 있는 학생들 모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지속적으로 장애우와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면 장애우 학생 및 다문화 학생이 보다 질 좋은 수준의 교육환경에서 교육 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일반 학생의 교육은 물론이고 장애인 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교육 환경이 잘 조성 되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리라 다짐해 본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기재,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220-5159

방청안내

■ 방청 신청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신청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의사담당관실)에서 방청권 교부
의사담당관실 : ☎ 043)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 충청북도의회 인터넷방송 : <http://assembtv.cb21.net/>
- 트 위 터 : https://twitter.com/chungbuk_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